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

홍영호
혜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e-mail:yhhong@hj.ac.kr

Student satisfaction survey on school safety education

Young-Ho Hong
Dept. of Fire-fighting & Safety Management, Hyejeon College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안전교육에 대한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안전교육 내용의 재구성 및 안전교육 강사에 대한 재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자료의 수집은 연구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실시하였다. 자료는 SPSS 19.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치(means±SD)를 산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학교 안전사고 인식과 안전 교육에 대한 인식을 통계학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실시 하였다.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3학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안전교육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율에는 남학생은 60.5%, 여학생은 74.3%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전교육이 안전의식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1학년 응답자의 50.3%, 2학년 응답자는 43.5%, 그리고 3학년 응답자는 43.2%가 영향을 준다고 답 하였다.

1. 서론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도 중요 하지만, 졸업 후 사회 생활에서 필요한 재난에 대한 예방의식 향상이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안전 의식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생활습관을 몸에 익히게 하는 환경조성도 매우 중요하다.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학교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의 필요성 및 인식에 대한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1].

기숙사라는 제한적인 공간에 있는 학생들의 대상으로 하는 안전의식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대상자 중 94%가 안전교육의 경험이 있으나, 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의 응답자가 53%로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가진다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2]. 안전교육의 경험에 대해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99.35%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3]. 이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안전교육의 실시 및 참여는 매우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와 같이 충분한 안전교육의 기회가 주어짐에도 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2,3].

일반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만족도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5점 척도로 3.67일 때

강사의 능력은 3.54로 강사의 강의실력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4], 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안전교육 만족도 평가에서는 교육 내용에 대한 흥미도가 가장 낮다고 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5], 안전교육의 내용에 대한 재구성 및 안전 교육자에 대한 재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안전교육에 대한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안전교육 내용의 재구성 및 안전교육 강사에 대한 재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설문 항목으로는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6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결측치를 제외하고 955명에 대한 응답 결과를 각 응답자의 성별 및 학년별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의 수집은 연구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실시하였다. 자료는 SPSS 19.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치(means±SD)를 산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학교 안전사고 인식과 안전 교육에 대한 인

식을 통계학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교차분석(Chi-square test)과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한 것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 등 6개의 설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설문항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Table 1. Survey items.

| Questionnaire |
|--|
| ① A lot of safety education is provided at school. |
| ② Safety education at school is necessary for school life. |
| ③ Safety education is carried out well in schools. |
| ④ Complete the training well in the safety training class. |
| ⑤ Safety education has an influence on safety awareness. |
| ⑥ School safety education is recommended on a regular basis. |

표 2에서 설문 조사에 사용된 6개 설문항 간의 상관성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2. Inter-item correlation.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 ① | 1.000 | .355 | .549 | .404 | .433 | .297 |
| ② | .355 | 1.000 | .341 | .422 | .434 | .577 |
| ③ | .549 | .341 | 1.000 | .579 | .558 | .306 |
| ④ | .404 | .422 | .579 | 1.000 | .583 | .411 |
| ⑤ | .433 | .434 | .558 | .583 | 1.000 | .479 |
| ⑥ | .297 | .577 | .306 | .411 | .479 | 1.000 |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Table 3. There are many factors that threaten safety around at students type. (Pearson $\chi^2=20.860, p<0.001$)

| | Frequency (%) | | | | |
|--------------|---------------|-------------|-------------|-------------|-------------|
| | Gender | | Grade | | |
| | male | female | 1st | 2nd | 3rd |
| Very scarce | 17 (3.8%) | 7 (1.4%) | 7 (2.1%) | 10 (2.7%) | 7 (2.8%) |
| Scarce | 60 (13.6%) | 55 (10.7%) | 40 (11.8%) | 39 (10.5%) | 36 (14.5%) |
| Usually | 177 (40.2%) | 201 (39.1%) | 121 (35.9%) | 142 (38.4%) | 115 (46.4%) |
| Suffice | 135 (30.6%) | 214 (41.6%) | 130 (38.6%) | 142 (38.4%) | 77 (31.1%) |
| Very suffice | 52 (11.8%) | 37 (7.2%) | 39 (11.6%) | 37 (10.0%) | 13 (5.2%) |
| Total | 441 (100%) | 514 (100%) | 337 (100%) | 370 (100%) | 248 (100%) |

안전교육 시간에 대한 성별 인식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42.4%가 비교적 많은 시간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학생이 경우 48.8%가 안전교육 시간이 비교적 많은 시간 동안에 진행되고 있다고 답하였다. 반면 안전교육 시간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남학생의 17.4%, 여학생의 경우에는 12.1%로 남학생이 비하여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비교적 많은 시간 동안에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안전교육 시간에 대한 학년별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1학년의 경우 50.2%가 비교적 많은 시간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학년의 경우 48.4%가 안전교육 시간이 비교적 많은 시간 동안에 진행되고 있다고 답하였다. 반면 3학년 응답자의 경우에는 36.3%만이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전교육이 충분한 시간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남학생의 60.5%가 학교에서 학습한 안전교육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반면 여학생이 경우에는 74.3%가 학교에서 학습한 안전교육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학교 안전교육의 충분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42.4%와 48.8%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율에는 60.5%와 74.3%로 여학생들 입장에서 안전교육이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에 대한 학년별 인식을 살펴보면 1학년의 경우에는 68.3%가 학교 생활에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학년의 경우에는 65.7%의 응답자가 안전교육이 학교생활에 필요하며, 3학년 응답자는 70.9%가 학교 안전교육이 학교안전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이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표 5과 같다.

안전교육이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1학년

응답자의 50.8%가 그렇다 라는 응답을 하였고, 2학년 응답자는 46.8%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3학년의 경우에는 45.5%가 학교에서 진행된 안전교육이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하였다. 안전교육의 충실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1학년은 8.6%, 2학년은 12.1%, 그리고 3학년은 14.1%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안전교육의 충실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안전교육이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재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There are many factors that threaten safety around at students type. (Pearson $\chi^2=9.383$, $p<0.311$)

| | Frequence (%) | | | | |
|--------------|---------------|-------------|-------------|-------------|-------------|
| | Gender | | Grade | | |
| | male | female | 1st | 2nd | 3rd |
| Very scarce | 14 (3.2%) | 0 (0.0%) | 4 (1.2%) | 9 (2.4%) | 1 (0.4%) |
| Scarce | 32 (7.3%) | 18 (3.5%) | 21 (6.2%) | 19 (5.1%) | 10 (4.0%) |
| Usually | 128 (29.0%) | 114 (22.2%) | 82 (24.3%) | 99 (26.8%) | 61 (24.6%) |
| Suffice | 188 (42.6%) | 290 (56.4%) | 161 (47.8%) | 185 (50.0%) | 132 (53.2%) |
| Very suffice | 79 (17.9%) | 92 (17.9%) | 69 (20.5%) | 58 (15.7%) | 44 (17.7%) |
| Total | 441 (100%) | 514 (100%) | 337 (100%) | 370 (100%) | 248 (100%) |

Table 5. There are many factors that threaten safety around at students type. (Pearson $\chi^2=19.122$, $p<0.014$)

| | Frequence (%) | | |
|--------------|---------------|-------------|-------------|
| | Grade | | |
| | 1st | 2nd | 3rd |
| Very scarce | 3 (0.9%) | 9 (2.4%) | 7 (2.8%) |
| Scarce | 26 (7.7%) | 36 (9.7%) | 28 (11.3%) |
| Usually | 137 (40.6%) | 152 (41.1%) | 100 (40.4%) |
| Suffice | 127 (37.7%) | 132 (35.7%) | 103 (41.5%) |
| Very suffice | 44 (13.1%) | 41 (11.1%) | 10 (4.0%) |
| Total | 337 (100%) | 370 (100%) | 248 (100%) |

Table 6. There are many factors that threaten safety around at students type. (Pearson $\chi^2=24.533$, $p<0.002$)

| | Frequence (%) | | |
|--------------|---------------|-------------|-------------|
| | Grade | | |
| | 1st | 2nd | 3rd |
| Very scarce | 3 (0.9%) | 9 (2.4%) | 2 (0.8%) |
| Scarce | 14 (4.2%) | 25 (6.8%) | 26 (10.5%) |
| Usually | 143 (42.4%) | 153 (41.3%) | 88 (35.5%) |
| Suffice | 120 (35.6%) | 136 (36.8%) | 110 (44.3%) |
| Very suffice | 57 (16.9%) | 47 (12.7%) | 22 (8.9%) |
| Total | 337 (100%) | 370 (100%) | 248 (100%) |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 결과를 표 6에 나타내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안전교육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1학년 응답자의 52.5%가 그렇다 라는 응답을 하였고, 2학년 응답자는 49.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3학년의 경우에는 53.2%가 학교에서 진행된 안전교육이 충실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안전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결과를 표 7 나타내었다.

1학년 응답자의 50.3%는 학교 안전교육이 안전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답하였다. 2학년 응답자의 43.5%, 그리고 3학년 응답자의 43.2%가 학교 안전교육이 안전의

식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답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학년이 증가할수록 안전의식에 학교 안전교육의 영향이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7. There are many factors that threaten safety around at students type. (Pearson $\chi^2=7.993$, $p<0.434$)

| | Frequence (%) | | |
|--------------|---------------|-------------|------------|
| | Grade | | |
| | 1st | 2nd | 3rd |
| Very scarce | 5 (1.5%) | 7 (1.9%) | 2 (0.8%) |
| Scarce | 29 (8.6%) | 37 (10%) | 30 (12%) |
| Usually | 133 (39.6%) | 165 (44.6%) | 109 (44%) |
| Suffice | 134 (39.9%) | 125 (33.8%) | 90 (36.3%) |
| Very suffice | 35 (10.4%) | 36 (9.7%) | 17 (6.9%) |
| Total | 336 (100%) | 370 (100%) | 248 (100%) |

Table 8. There are many factors that threaten safety around at students type. (Pearson $\chi^2=21.594$, $p<0.001$)

| | Frequence (%) | |
|--------------|---------------|-------------|
| | Gender | |
| | male | female |
| Very scarce | 9 (2%) | 5 (1%) |
| Scarce | 31 (7%) | 65 (12.6%) |
| Usually | 207 (47%) | 200 (39%) |
| Suffice | 143 (32.4%) | 206 (40.2%) |
| Very suffice | 51 (11.6%) | 37 (7.2%) |
| Total | 441 (100%) | 513 (100%) |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안전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하여 성별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표 8에 나타내었다.

여학생 응답자중 47.4%가 안전교육이 안전의식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남학생 응답자 중 44%가 학교 안전교육이 안전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답하였다. 안전의식 형성에 학교 안전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참고문헌

[1] J. Chae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chool Administrators Safety Education Satisfaction on Transition Intention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School Safety Awareness, *Fire Sci. Eng.*, Vol. 33(4), pp. 152-162, 2019.

DOI: <https://doi.org/10.7731/KIFSE.2019.33.4.152>

[2] M. G. Lee, S. H. Choi, J. M. Kim, Y. Y. Choi, 'A Study on the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through Safety Awareness Survey for the Students living in a Dormitor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er Technology*, Vol. 2(2), pp. 37-44, 2016.

DOI: <https://doi.org/10.17703/JCCT.2016.2.2.37>

[3] H. C. Lee, P. Jang, J. H. Kim, 'School Safety education status and the awareness and practice of safet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First aid, disaster safety, traffic safety, and daily life safety, *Korean J. Emerg. Med. Ser.*, Vol. 25(2), pp. 129-143, 2021.

DOI: <https://doi.org/10.14408/KJEMS.2021.25.2.129>

[4] K. D. Kim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Levels of Safety Education of Forest Workers, *J. Korean Soc. For. Sci.*, Vol. 107(4), pp. 418-435, 2018.

DOI: <https://doi.org/10.14578/jkfs.2018.107.4.428>

[5] S. S. Kim, H. S. Kong 'The Effect of Safety Education Satisfaction of Apartment Residents and Application of Fire Protection Plan on Fire Safety Awareness, *Fire Sci. Eng.*, Vol. 34(1), pp. 103-114, 2020.

DOI: <https://doi.org/10.7731/KIFSE.2020.34.1.103>